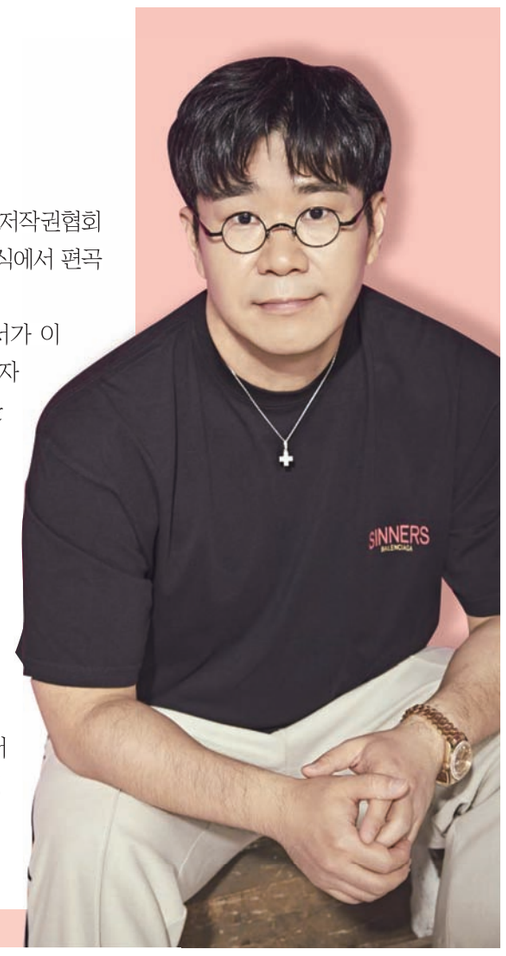
강남구 논현동

작곡부터 프로듀싱까지… '히트곡 제조기' 조영수 첫 걸그룹 선발



조영수는 2000년대 초부터 현재까지 대한민국을 뒤흔든 '히트곡 제조기'로 불리는 작곡가다. 쥬얼리 '바보야', SG워너비 '라라라', 이승철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 씨야 '여인의 향기', 티아라 'Day by Day', 홍진영 '사랑의 배터리', FT아일랜드 '천둥', KCM '클래식', 임영웅 '이제 나만 믿어요', 이기찬 '미인' 등이 대표곡이다.

조영수의 전공은 음악과는 다소 거리가 먼 생명공학도로 처음부터 작곡가를 꿈꾼 것은 아니었다. 다만 "인생을 살며 음악을 좋아하지 않은 순간은 단 한번도 없었다"고 밝힌 것과 같이 음악에 대한 애정만큼은 누구보다 대단했다. 그는 고등학교 2학년 때 1993년 MBC 라디오 프로그램 '별이 빛나는 밤에'의 코너 '별밤 뽐내기 대회'에 출전해 미국 R&B 그룹 '보이즈 투 맨'의 노래를 불러 2등을 차지하며 음악 재능을 세상에 알렸다.

조영수는 연세대 공대에 다니던 중



YS빌딩 서울 강남구 논현동 263

1995년 MBC 대학가요제에서 '열두 번째 테마'란 팀으로 출전해 직접 작곡한 '새로나기'란 곡으로 대상을 수상했다. 이를 통해 가수 동물원에서 음반을 제작하자며 연락을 받고 이듬해 앨범을 발매했다. 작곡가로서는 제대 후 직접 작곡한 곡을 담은 CD를 작곡가 김형석에게 직접 전달하며 자신을 적극 홍보한 끝에 2003년 옥주현의 솔로 1집 앨범의 '디스 크러시(This crush)'와 '이연' 두 곡으로 작곡가로서 첫 발을 뗐다.

이후 수많은 곡을 작곡한 그는 많은 히트곡만큼이나 지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 연속 저작권료 수입 1위를 차지하며 '저작권 킹'으로 자리매김했다. 이와 관련, KBS 라디오 '박명수의 라디오쇼'에 출연해 "제가 정말 좋아하는 차 2~3대 정도는 유지할 수 있는 정도는 버는 것 같다. 스포츠카도 있다"고 수입에 대해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조영수는 TV조선 '내일은 미스트롯2' 심사위원, 불후의 명곡 심사위원 등을 맡으며 활발한 방송 활동을 이어갔다. 특히 최근 트로트의 인기에 힘입어 관련곡 작곡에 힘을 실었는데 처음 작곡한 트로트곡은 2009년 발매한 홍진영의 '사랑의 배터리'다. 해당 곡은 당시 전 국민이 따라 부를 정도로 큰 히트를 쳤으며 많은 사랑을 받았다. 2019년에는 유재석의 또 다른 캐릭터 유산슬의 곡 '사랑의 재개발'을 작곡해 화제가 됐고, '미스트롯'에서 1등한 송가인에게 '찍어'라는 곡을 부상으로 전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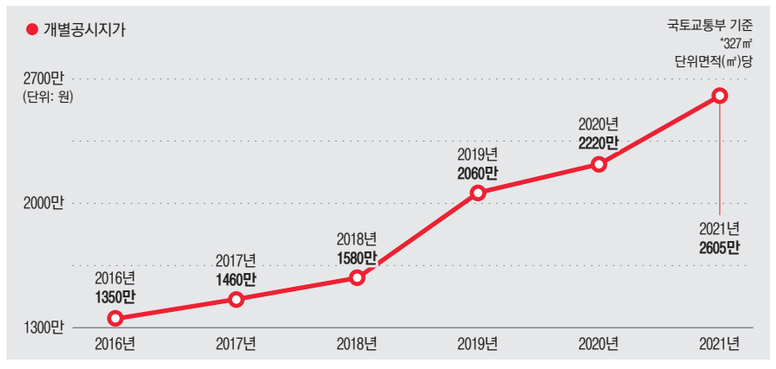
수상경력도 다양하다. 2006년 SBS 가요대전 작곡가상, 서울가요대상 작곡가상, 2011년 한국음악저작권대상 대상, 2015년 제6회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 문화체육부장관 표창을 수상하며 대중문화 발전에 공로를 인정받았다. 2018년에는 IOC(국제올림픽위원회) 의뢰로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음악감독을 맡아 시상식 배경음악 '티어스 오브 글로리(Tears of Glory)'를 작곡하는 등 음악적 스펙트럼을 넓혔다. 이어 올해 2월에는 온라인으로 진행된 제7회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AC) 저작권대상 시상식에서 편곡상 대상을 수상했다.

한편 조영수 대표 프로듀서가 이끄는 넥스타엔터테인먼트는 자사의 1호 걸그룹 멤버 선발을 위한 오디션을 열고 있다. 새 걸그룹을 위한 오디션 접수 기간은 30일까지다. 지원부문은 보컬·랩·댄스 3가지 부문이다. 참가 조건은 2001년생부터 2005년생 여자라면 누구나 이번 오디션에 지원할 수 있다. 작곡가로 큰 성공을 거둔 조영수가 프로듀서로서 자신의 1호 걸그룹을 성공시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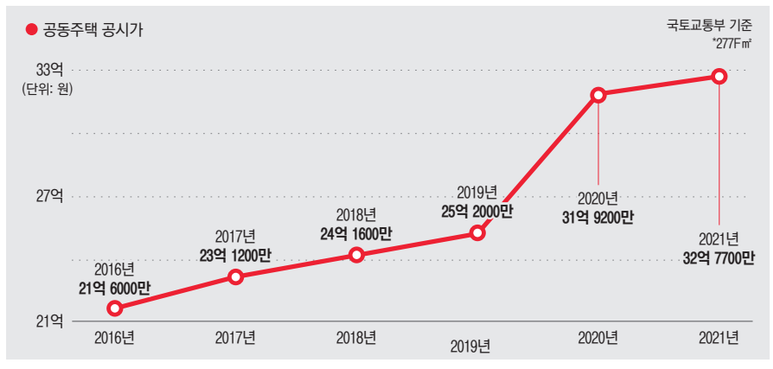
이동원 기자

조영수 현)작곡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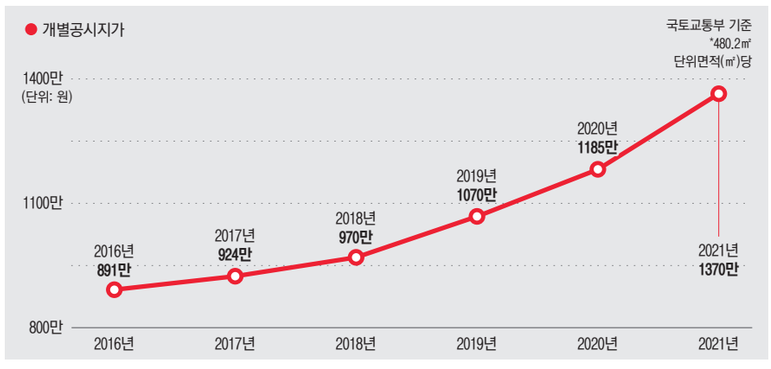
그림바우빌딩 서울 강남구 논현동 235-10



논현아펠바움1차 서울 강남구 논현동 250



빌딩 서울 강남구 논현동 112-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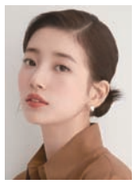
문진호 현)DMP건축 대표이사



문진호 DMP건축 대표이사는 서울대학교 건축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건축 석·박사 과정을, 미국 버클리 대학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 Rasmussen Ingles & Anderson, San Francisco, U.S.A에서 실무한 후 2000년부터 2007년까지 정림건축 대표이사를 역임했다. 주요 작업으로 한강예술섬 서울 공연예술 센터,송도아트센터, 하이원리조트, 가톨릭 150주년 기념관, 강원도 정선 공소, 월드컵상암구장, 인천국제공항 메인 터미널, 대전가톨릭대학성당, 이화여자대학교 행정동 등이 있다. 그는 2000년부터 2007년까지 약 8년간 정림건축에서 인연을 맺어온 건축가 박승홍 대표와 함께 DMP건축을 설립하면서 우리나라 설계사무소의 대안을 모색했다. 작가정신, 팀워크, 시스템이 뒷받침되는 조직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가장 디자인을 잘하고, 가장 선한 건축을 하려는 건축가들에게 좋은 회사의 틀을 만드는 사람이 되고자 한다.



수지(배수지) 현)가수, 배우



수지는 '미쓰에이'(miss A) 멤버로 데뷔해 지금은 배우와 솔로 가수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2009년 Mnet 오디션 프로그램 '슈퍼스타K' 광주지역 예선에 참가했다가 노래 실력을 알아본 JYP엔터테인먼트 관계자에게 캐스팅돼 2010년 7월 데뷔했다. 미쓰에이는 'Bad Girl Good Girl'로 데뷔한 지 22일 만에 지상파 음악프로그램에서 1위를 차지하며 대중의 시선을 단숨에 사로잡았다. 이후 수지는 2011년 KBS 드라마 '드림하이'의 주인공 고혜미 역에 캐스팅돼 처음으로 연기에 도전했다. 배우로서 입지를 굳힌 수지는 이듬해 영화 '건축학개론'을 통해 스크린에 데뷔했다. 드라마 '빅' '구가의 서' '함부로 애틋하게' '당신의 잠든 사이에' '배가본드' '스타트업' 등과 영화 '도리화가' '백두산' 등에 출연했으며 영화 '만추' 등을 연출한 김태용 감독의 영화 '원더랜드'가 개봉을 앞두고 있다.



박동훈 전)닉스테크 대표이사



박동훈 전 닉스테크 대표이사는 유타주립대학교 전자계산학과를 졸업하고 조지워싱턴대학교에서 경영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그는 한연테크 SI사업부 팀장, 경민대학교 전산정보처리과 겸임교수, 정보통신연구진흥원 평가위원, 지식경제부 지식정보보안아카데미 운영위원, 한국디지털포렌식학회 부회장,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이사 등을 지냈다. 그가 1995년 창업한 닉스테크는 엔드포인트 보안 전문 기업으로 PC보안과 보안 UBS 분야에서 시장 점유율 1위를 선점하며 보안USB, 개인정보보호, 네트워크접근제어 솔루션 등에서 경쟁력을 갖고 있다. 닉스테크는 지금까지 여러 번 사명을 거쳤는데 '바이오닉스진' '한류AI센터'를 거쳐 현재는 '마이더스AI'로 운영되고 있다. 최근 여러 기업에서 지속적인 개인정보 유출 사고들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보안이 중요해지면서 마이더스AI도 영향을 받고 있다.



맛깔나는 우리동네 부동산

광복교~사성교 왕복 6차로 확장 개통… 교통정체 개선 전망

서울특별시 구로구



서울시

서울시는 광복교~사성교 구간을 왕복 6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사진은 사성교 원경.

서울시는 남부순환도로 구로구 광복교~사성교 1.1㎞ 구간을 왕복 4차로에서 왕복 6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이 완료돼 지난주 토요일 개통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남부순환로 광복교~사성교 구간의 병목현상이 해소돼 출퇴근 시간 교통정체가 크게 개선됐다. 아울러 차량 평균 통행속도는 과거 32㎞/h에서 37.6㎞/h로 약 5.6㎞/h 빨라지고 등급별(A~F)로 나타나는 서비스 수준은 D등급에서 C등급으로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광복교~사성교 도로확장공사는 2016년 4월에 착공해 5년 8개월 만에 준공했다.

사성교는 1977년 건설되어 노후된 기존 교량을 철거하고 수려한 디자인의 아치교로 탈바꿈했다. 여기에 제외지 내 교각수를 8개소에서 4개소로 줄였으며 교각 사이의 간격을 25m에서 37.5m으로 넓게 아치교로 건설했다.

시는 사성교가 수려한 미관으로 안양천을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광복교와 주변도로는 6차로로 넓혀 오류방향의 경우 폭 9.3m의 교량이 신설됐으며 구로방향은 폭 4.4m의 보도교가 추가로 설치됐다.

이곳은 2014년 6월에 자동차전용도로가 해제됐으나 보도가 조성되지 않아 목감천과 안양천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어 왔다.

이에 따라 도로 양측에 보도가 신설돼 보행환경 개선은 물론 수변공간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 지역 주민들의 편의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정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남부순환로의 병목구간 해소로 교통정체가 대폭 해소되고, 단절된 보도를 연결하여 안양천 수변공간을 시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하게 될 것이다"며 "오랜 공사기간으로 통행의 불편을 감수해 주신 시민들께 감사드린다. 시민들의 편리하고 안전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동 갈사만조선·두우레저 단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군 갈사만조선산업단지

경남도는 하동군 금성면 가덕, 갈사, 궁항, 고포리 일원 갈사만조선산업단지, 두우레저단지 조성예정지 517만1130㎡(1399필지) 규모의 부지를 21일부터 2023년 11월 20일까지 2년 간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밝혔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를 유도해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와 급격한 지가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정·운영하는 제도다.

허가구역 내 △주거지역 180㎡ △상업지역 200㎡ △공업지역 660㎡ △녹지지역 100㎡ △기타지역 90㎡ 등을 초과하는 면적에 대한 토지거래는 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후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이 가능하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의 재지정 내용은 도 누리집 공고문 및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하동사무소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한편 갈사만조선산업단지 개발사업은 금성면 갈사·가덕리 일원에 조선과 해양플랜트 등을 유치하는 사업으로 장기간에 걸쳐 추진하고 있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과 하동군이 함께 신규 투자자 확보와 투자의향 기업 발굴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현재 수행 중인 개발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 결과에 따라 개발 전략을 재수립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두우레저단지는 금성면 궁항, 고포리 일원에 관광레저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올해 1월 사업시행자를 지정했으며 향후 내년 상반기 실시계획 수립 후 토지보상 절차를 거쳐 2024년 12월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허동식 도시교통국장은 "현재 전국적으로 개발호재가 있는 지역에 부동산 과열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했다"며, "과도한 사유재산 제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발사업 예정지에만 최소한의 공간적 범위로 2년간 허가구역을 재지정하는 만큼 실수요자에 대한 피해를 최소한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개발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으로 경제자유구역과 하동군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사업 추진 경과 및 부동산시장 상황에 따라 추후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대한 점검을 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